

우리나라 건축문화재의 Universal Design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Universal Design in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김 중 혁*
Kim Jonghyuk

신 병 옥**
Shin, Byeonguk

이 옹 구***
Lee, Woonggu

Abstract

In Korea, the Basic Act is guaranteed through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for Disabled Person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nd various ordinances.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Universal Design (UD). By applying this where it is most needed, access to cultural properties is enhanced to promote multiple rights. Currently, the region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the elderly in Korea is Gyeonggi-do, but the region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elderly is Jeolla-do. However, the Jeolla-do area is lagging behind in the revision of UD regulations or guideline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and introducing it to each facility will also help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establish and apply effective universal design-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aspects of social change that affect our lives. In this study, the need for UD should be expanded as a basis for expanding social activities of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in Jeollabuk-do. Its goal i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UD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application of improvements.

주 요 어 : 건축문화재, 장애,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Keywords :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y, Handicapped, Barrier Free, Universal Desig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1970년대 중반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설치와 공간조성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과 문제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관한 정의에서 Mace(1985)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과 능력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접근으로 정의하였으며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ability)”과, 장애를 가진 것(disability)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Weisman(1994)는 사용자 중심적인 디자인이고, 평등, 융통성, 기능이 강조되고 사회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Lobovich(1993)는 장애인 및 노인의 증가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적 요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간의 차이를 제거하고 지원성, 접근성, 안전성 등의 원리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으로 보았다. Wilkoff 와 Abed(1994), Langmuir(1996), Whitehouse(1996) 등의 내용이 있다.¹⁾ 궁극적으로 이들 내용의 공통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시설에 어렵지

않게 접근하여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복지사회를 맞이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생활 패러다임의 변화, 고령화, 보편화, 세계화의 추세에서 공공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체활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평등한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보장을 위하여 이들 시설의 확보가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다.

Table 1.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용어	의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문장의 의미 그대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inclusive design)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 아닌 모든 사용자들을 포용하는 (inclusive) 디자인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인간 중심 디자인 (human-centered design)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유사개념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문장 그대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 아닌 모든 사용자를 포용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인간 중심 디자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 공학박사
***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Incheon Jaeneung University, mylee5277@naver.com)

1) 황춘희, 지체장애인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2010, p.40. 요약

과 다양한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UD(Universal Design)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기도 하고 설치하고 있다.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 다른 본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건축문화재는 그 성격상 장애인 시설을 따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현황과 관련하여 각종 문헌 및 보고서, 법률,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는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Table 2. Reclassification of Universal Design Principles

4가지 원리	7가지 원리	원리
미국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1995)	미국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1997)	나카가와사토시(2003)
수용 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디자인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 동등한 수단과 선택권 제공 • 호감이 가는 디자인 • 차별이나 불공평 배제	공평한 사용에 대한 배려 • 평등한 사용 및 선택권 제공 • 불안배제와 안심확보 • 차별감 배제 및 폭넓은 호감도
	사용상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 사용법의 선택권 제공 • 주로 쓰는 손의 수용 • 사용자의 정밀도나 속도차이 수용 • 다양한 개인 능력과 선호 수용	사용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 • 사용법의 자유 및 주로 쓰는 손의 수용, 사용 환경에 대한 허용도 • 정밀도에 대한 관용 • 작업 속도의 자유도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 (supportive design) •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어떤 부담도 야기하지 않는 디자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formation) • 경험, 지식, 언어에 상관없는 사용상 이해 • 불분명한 복잡함 배제 알기 쉬운 배치 • 사용자의 기대와 직감 일치 • 조작에 대한 실마리와 피드백 제공	간단하고 명쾌한 사용법 추구 • 복잡한 배제 및 직감과 일치 •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이해 • 간단한 조작으로 유도 • 조작에 대한 실마리와 회답 • 오감정보에 대한 배려와 활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 환경이나 인지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 효과적 전달 및 가독성 최대화 • 그림, 문자, 점자, 등 복수수단으로 제공 • 보조기구나 장치의 사용가능성 제공	모든 감각에 대한 정보성 배려 • 정보전달의 중복과 확보 • 인지수단의 선택과 가능성 • 파악하기 쉬운 사용상의 구조 • 보조수단의 허용
안전을 지향하는 디자인 (safety-oriented design) • 건강과 복지증진을 제공하는 디자인이며 안전성은 물리적 위험 극복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성(자립심, 소속감 등) 제공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 위험 최소화 • 의도하지 않은 행동, 사고에 대한 대응책 • 위험요소 제거, 격려하여 오작동에 대한 사고 최소화 하는 배치 • 경고시스템과 조작 실패 시 복귀수단 제공	사고 방지와 오작동에 대한 수용 • 사고를 방지하는 기본구조와 구성 • 위험요소의 격리, 현상복귀 수단 • 경고시스템 마련, 사고예방 • 사고 발생 시의 안전 확보 • 모든 안전성에 대한 배려
	적은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 신체 피곤 최소화, 편안하고 효과적인 사용 • 안정된 자세유지와 적절한 힘의 사용 · 되풀이 되는 동작 배제	신체적 부담 경감 • 쾌적한 사용을 위한 자세 • 무의미한 반복 동작 배제 • 적당한 힘으로 제어하여 신체 부하량의 경감 및 감각기관의 보호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 심리적 장애물과 물리적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for use) • 신체 사이즈, 자세, 이동성과 관계없이 접근, 도달, 동작 가능/ 다양한 손 크기, 악력 수용 • 어떤 자세에서도 중요한 요소 인지 • 보조 장치나 도우미 공간 제공	사용하기 적합한 사용 공간(크기, 면적)과 조건 확보 • 인지의 확보 및 사용위치의 확보 •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대응 • 보조, 개조의 여지 • 점유면적의 부담경감

2. 장애인과 Universal Design

2.1 장애인 인구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어 그 때문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²⁾. "기존의 손상, 불능, 사회적 불리의 개념을 신체의 기능과 구조 (Body Function & Structure) 를 가진 사람"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폐질의 상태가 영속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2조) 최근에는 장애인의 범위가 영구적 의미가 아닌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일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도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렇게 장애인이란 신체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국제 노년학회에서 "생리적,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 으로 노화과정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감퇴하거나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의 시기에 있는 사람, 생체의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조직의 능력이 감퇴되어 변화에 적응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Breen은 "노인은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노인이라 생리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수혜시기를 만60세로 규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표에서와 같이 2000년에 33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던 것이 2018년에 70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어 18년 만에 2배 증가하고 있다. 2026년에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도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able 3>.

Table 3. Changes in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구분	2000년	2006년	2010년	2018년	2026년
총 인구수(만명)	4,701	4,830	4,887	4,934	4,904
노인인구(만명)	339	459	536	707	1,022
비율 (%)	7.2	9.5	11	14.3	20.8

2.2 관련 법규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법규는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처음이다. 여기에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고려한 건축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후 1985년 이후 제정된 건축법에서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람석에 규정, 승강기, 화장실,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1989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규정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한 본격적인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06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8년에 제정된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종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상남도, 파천시, 광주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Table 4. Major laws related to cultural sites. institution

분류	법률명	주요 내용
장애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건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교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도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강영실, 장애인의 정의 및 현황, 2004. p.1.

3. Universal Design의 현황과 개선방안

3.1 조사

본 연구와 관련된 법률로써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무장애 환경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및 제도는 건축, 교통, 보행, 디자인 분야로 분리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문화유적지가 문화시설인 만큼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광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 및 예규에 대해 언급한다.³⁾

건축문화재의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산사 여 전라북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문화재의 성격과 문화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인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전, 김제 금산사, 남원 광한루, 고창 선운사 등 장애인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외에 서울의 경복궁,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등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하여 전국적인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당해 문화재의 각 시설을 답사하면서 실측할 부분은 실측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자 및 장애인 이용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전

경기전의 경우 전반적으로 장애인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경기전이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한 때문으로 보인다. 단지 경기전이 조선시대에 건축된 한옥 건물이기 때문에 문턱의 요철이나 경사로의 구배가 다소 높았다. 창경궁에 설치한 경사로의 사례를 보면 문턱의 마모방지 및 경사로 가드레일 설치로 휠체어의 이탈 방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재의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 청각 장애인 위한 유도 안내설비가 촉지식으로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등이 한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있어서 당해 건물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인접한 어진박물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경기전이 평지에 입지한 관계로 양호한 편이었다 <Fig. 1>.

3) 한국장애인 개발원, 문화유적지 무장애 공간 조성 연구, 2018. p.13

Table 5. Universal Design status of gyeong-gi jeon

항 목	현황	개선방안
문턱의 단차, 요철	그대로 유지	부분적으로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보완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 청각 장애인 위한 유도 안내설비	안내판이 촉지도식으로 되어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 필요
장애인등이 한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어진박물관에 승강기 설치됨	



Fig. 1. Universal Design status of gyeong-gi jeon

(2) 금산사

금산사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금산사에는 오층 석탑, 육각 다층석탑, 북강 삼층석탑 총 3개의 석탑이 있고 미륵전과 대장전 총 2채의 한옥이 있다. 금산사의 총 면적은 71,292㎡이다.

금산사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경우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공영주차장은 문화재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사찰 내부에 주차장이 별도로 구역화하여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 금산사 역시 한옥 건축물인 관계로 턱이 높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Table 6. Universal Design status of Geumsansa Temple

항 목	현황	개선방안
부설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매표소, 음료대, 자판기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 규격 시설	매표소는 되어 있음 자판기 접근 불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또는 부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전혀 되어있지 않음	한옥과 문화재 특성상 문턱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경사로는 설치 필요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 청각 장애인 위한 유도 안내설비	안내 설비 없음. 안내서도 낮게 설치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유도 안내 설비 필요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부착물 부착	유일한 휴식장소인 나무그늘 휴게소에 휠체어 입장불가	휠체어 접근 가능토록 개선 필요

(3) 남원 광한루

남원 광한루는 전라북도 남원시 천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누정건축이 위치하고 있다. 광한루는 대표 누각인 광한루와 전통정원, 영주각 등의 부속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다.

광한루원의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은 입구의 경우 접근로에 대한 안정감 있는 보행로 확보는 되었으나 문화재시설 관람을 위한 해당 전각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되지 않았다. 광한루원 내의 건축물(광한루, 영주각, 완월정 등)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또는 부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 청각 장애인 위한 유도안내설비가 없으며 안내판, 설명서는 시각장애인 전용 촉지도식 설명서는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없다.

Table 7. Universal Design status of Gwanghallu

항 목	현황	개선방안
매표소, 음료대, 자판기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 규격 시설	음수대, 잉어먹이 판매대는 장애인 접근 불편	음수대 바닥 턱 및 판매대 창구 높이 조정 필요
건축물의 주출입구(또는 부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광한루원 내의 건축물(광한루, 영주각, 완월정 등)에는 오를 수 없음	문화재이므로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 청각 장애인 위한 유도 안내설비	안내판, 설명서는 시각장애인 전용 촉지도식 설명서는 있으나 청각장애인 위한 시설은 없음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부착물 부착	유일한 휴식 장소인 나무 그늘 휴게소에 휠체어 입장 불가	시설 일부 개선 필요

(4) 고창 선운사

선운사는 선운산 도립 공원과 인접한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도솔산에 위치하고 있다. 선운사의 면적은 약 28,218 m²이고 현존하는 전각은 대웅보전과 관음전·영산전·팔상전·명부전·산신각·만세루·천왕문이 있고, 대웅보전 앞에는 6층 석탑과 괘불대·당간지주·석주 등이 있다.

선운사 내 전각 건축물(부도전, 성보박물관, 대웅전, 관음전, 만세루 영산전, 명부전 등 모든 건물 입장이 불가)의 주출입구(또는 부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는 문화재의 특성으로 볼 때 근본적인 내용이지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8. Universal Design status of Seonunsa Temple

항 목	현황	개선방안
매표소, 음료대, 자판기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 규격 시설	음수대 사용 불편, 매표소 창구와 계단이 높아 이용 불편	음수대 바닥턱, 매표소 창구 높이 및 계단 개선 필요
건축물의 주출입구(또는 부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부도전, 성보박물관, 대웅전, 관음전, 만세루, 영산전, 명부전 등 모든 건물 입장 불가	한옥의 특성상 문턱은 어쩔 수 없더라도 계단 한쪽은 개선이 요구됨
기타	매점(선다관)의 계단과 문턱 때문에 휠체어 통행 불가	한옥으로서 문턱은 어렵다 해도 계단은 개선 필요

(5)기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경복궁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와 그 지지자들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한양성으로 옮기면서 궁궐을 조성하였는데 1394년(태조 3) 신궐조성도감(新闕造成都監)을 두고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 좌복야 김주(金湊), 전정당문학 이엽(李恬), 중추원학사 이직(李稷) 등을 판사에 임명하여 실무를 담당, 해산(亥山:北岳山)을 주산(主山)으로 삼고 임좌병향(壬坐丙向:北北西에 앉아 南南東을 바라 봄)의 터를 잡아 건축하였다.

경복궁은 국제적인 도시 서울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재답게 유니버설 디자인도 잘 설치해 놓았다.

그래서 경사로, 화장실 등 전반적으로 만족한 수준이었다. 즉, 문턱 등은 나무판을 이용하여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 등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같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창경궁은 왕후(세조·덕종·예종)의 거처를 위해 옛 수강궁 터에 지은 것으로 1483년(성종 14) 2월부터 짓기 시작하여 1484년(성종 15) 9월에 완공되었다. 이때 지은 집이 명정전·문정전·수녕전·환경전·경춘전·인양전·통명전과 양화당·여취당 및 사성각 등이다. 창경궁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답게 문턱 등은 나무판 등을 이용하여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실 등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Fig. 2>.



Fig. 2. Palace ramp

백제문화단지는 백제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7년간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에

3,276,000㎡ 규모로 조성하였다. 시설의 구성은 공공시설인 사비성(왕궁, 능사, 생활문화마을 등), 백제역사문화관, 한국전통문화학교와 민자 시설인 숙박시설, 테마파크, 테마 아웃렛,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재현단지의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은 이 건물이 근래에 건축하였고 당해 문화재는 아니어서 장애인시설을 오나벽하게 갖추고 있다. 문턱이 있거나 단차가 있는 부분은 경사로를 설치하여 보완하였고 각종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Fig. 3. Baekje Rehabilitation Complex Disabled Facilities

(6)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도 문화재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문화재가 위치한 대지가 좁아 접근성과 건물 구조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케이블 카 등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건물 내에서는 리프트, 경사로 등을 도입하고 있었다.

교토에 위치한 세계유산 중 하나인 청수사에서는 최근 하나의 경로이지만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배리어프리

를 실현했다. 물론 다른 관광객과도 같은 동선 내이다. 도중 작은 단차와 단수가 많은 계단으로 지금까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할 수 없었던 곳으로 슬로프를 만들어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청수사 내의 화장실도 휠체어 사용자용으로 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리어 프리를 착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북경은 문화유산의 현상을 배려하면서도 고·저차가 큰 시설 내의 접근 경로를 수리하였다. 원내에서는 휠체어 대여도 진행되고 있다. 고궁의 노면이 개선된 사항, 단차해소를 위해 슬로프판 설치, 리프트를 계단에 설치하고 리프트 외측에 벽면과 같은 색의 벽을 만들어 면에서 봐도 위화감 없는 벽면으로 마감한 좋은 사례이다. 또한, 경관상 아무래도 경사로나 리프트가 설치되기 어려운 계단에서 계단승강기를 이용한 예이다.

3.2 분석 및 종합

우리나라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가 가지는 진정성(authenticity)이나 정체성(identity)으로 인하여 장애인 시설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사례에서 본 전주 경기전은 지방에 위치한 건축문화재 중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비교적 잘되어있는 편이었다. 즉, 경기전 출입구와 내부의 계단에 단차를 완화시켜주는 데크를 조성하면서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실제 조사기간 내에 볼 수 있었다. 화장실 내부도 점자 블록 및 내부지지대의 설치가 잘 되어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제 금산사 대웅전 및 입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례를 보면 접근로에 대한 안정감 있는 보행로 확보는 되었으나 문화재 시설 관람을 위한 해당 전각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금산사 전각 건축물 주출입구 부근

Table 9.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by destination

대상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현황									
	출입구 접근로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음료대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안내설비	공중시설 장애인 이용 가능	복도 통행 가능	층간 이동 가능	화장실 장애인간 유무	그외
전주 한옥마을	○	○	동문 매표소 개선 필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 필요	-	-	○	○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함
김제 금산사	○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매표소는 되어 있음 자판기 접근 불가	한옥과 문화재 특성상 문턱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경사로는 설치 필요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유도 안내 설비 필요	휠체어 접근 가능토록 개선 필요	-	-	○	
남원 광한루	○	○	음수대 바닥턱 및 판매대 창구 높이 조정 필요	문화재이므로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안내판, 설명서는 시각장애인 겸용 촉지도식 설명서는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없음	나무그늘 휴게소 휠체어 입장 불가	-	-	○	
고창 선운사	○	○	음수대 바닥턱, 매표소 창구 높이 및 계단 개선 필요	한옥의 특성상 문턱은 어쩔 수 없다라도 계단 한쪽은 개선이 요구됨	○	○	-	-	○	한옥으로서 문턱은 어렵다 해도 계단은 개선 필요

양호

에 시각, 청각 장애인 위한 유도 안내설비가 없고 설명서도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유도 안내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 광한루는 입구 유니버설 디자인의 경우 안정감 있는 보행로는 확보되었으나 문화재시설 관람을 위한 해당 전각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 광한루원 내의 건축물(광한루, 영주각, 완월정 등)에는 오를 수 없다. 건축물의 주출입구(또는 부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한루원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 청각장애인 위한 유도 안내설비가 없으며 안내판, 설명서는 시각장애인 겸용 촉지도식 설명서는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없으므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판단된다.

선운사는 일주문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있어서 안정감 있는 보행로는 확보되었으나 문화재시설 관람을 위한 해당 전각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 선운사 내 전각 건축물(부도전, 성보박물관, 대웅전, 관음전, 만세루, 영산전, 명부전 등 모든 건물 입장이 불가)의 주출입구(또는 부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내용을 보면 서울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잘 적용된 반면 지방에 위치한 문화재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은 필요해 보인다.

3.3 개선방안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재도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인구 구조변화와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인식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노력이 문화재 분야에도 필요하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비장애인이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사용해봄으로써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건축문화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를 정리하여 ‘무장애공간 우수성과 간행물’로 제작·배포해 도내 건축문화재 무장애공간 조성 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건축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시설, 설비의 개선·시민 홍보뿐만 아니라 문화재 향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편의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 주변 무장애시설물들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준’을 재정립해 전라북도 문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법적 근거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문화유적을

만들기 위한 <공·능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공간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문화재청 공능유적 본부는 2026년까지 궁궐과 종묘, 그리고 조선왕릉을 성별이나 장애, 연령, 언어 등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범용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무장애공간으로 만들기 로 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창경궁은 ‘무장애공간 조성사업’(보행시설정비, 문화재 측각모형제작 등), 선정릉 ‘유니버설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사업’(유니버설 디자인 안내판 설치 등)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완료한 창경궁과 선정릉은 현재 장애, 연령, 국적 등 관람에 불편을 주었던 장애요소들을 상당히 제거한 상태로 방문객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는 민간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해 무장애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대상과 필요한 시설물들을 찾아내 개발하게 되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화재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별·연령·장애·언어 등의 제약 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삶의 질의 향상에 따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의 고령화 도시인구 구조의 변화와 보편화,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일부 지자체 및 기관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공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계획 및 연구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대적 공공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시설 중 특히 문화재 이용에 관한 편의증진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일부 요소만 적용되어 있다. 이는 결국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문화재 관람에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후에도 문화재 시설을 재방문할 확률이 높지만 관람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점점 문화재 시설 방문 횟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확대의 기반 조성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건축문화재 경기전, 김제 금산사, 남원 광한루, 고창 선운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수도권 문화재와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조사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전, 남원 광한루, 금산사, 선운사 등의 지방에 위치한 문화재는 문화재의 진정성과 정체성, 한옥 건축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나무판 등을 이용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보완하고 있었으나 오나전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특히 청각장애자나 시각장애자를 위한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나 국제적인 문화재 등은 나무판을 보완하여 경사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다. 외국의 경우 문화재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문화재에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으로는,

- 장애인이 직접 이용해보고,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무장애공간 우수성과 간행물 등 홍보자료 배포를 통한 이용자 범위 확대
- 관련 조례, 법적 근거 등 제도적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강영실, 장애인의 정의 및 현황, 2004.
2. 한국장애인 개발원, 문화유적지 무장애 공간 조성 연구, 2018.
3. 황춘희, 지체장애인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고령자 치매작업치료학회지, 4(1), 2010.

접 수 일 자 : 2020. 10.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0. 11. 15

게 재 확 정 일 자 : 2020. 11. 21